

첫 세트·첫 승점·첫 승 ... AI 페퍼스, 배구코트 휘젓다

“1세트도 못 팔 것” 우려 깨끗이 씻어
엘리자벳 ‘펄펄’ 김형실 리더십 돋보여
짙은 범실·약한 수비력 꼭 해결해야



첫 세트, 첫 승점, 첫 승까지. AI페퍼스가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며 여자배구 1라운드를 휘저어놓았다.

AI페퍼스는 지난 9일 첫 승을 올리며 총 승점 4점, 6위로 1라운드를 마무리했다. 시즌 개막 전 ‘1세트 따는 것조차 버겁다’는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는 1승이었다.

AI페퍼스는 실제로 ‘1승’을 기대할 만한 팀이 아니었다.

AI페퍼스에는 특별한 스타 플레이어 없다. 팀 결성 5개월만에 시즌을 시작해야 했으며, 그나마도 창단식, 전국체전, 세터 박사랑의 부상 등 변수도 많아 개막전에 앞서 선수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연습을 시작한 건 불과 5일 남짓이었다. 충분한 팀워크가 쌓이기엔 너무 짧은 시간이었다.

또 신인 중심으로 선수진을 꾸린 AI페퍼스는 평균 나이 21세로 리그 경쟁이 적은데다 평균 신장 178cm로 피지컬조차 다른 팀에게 밀린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달랐다. 실전에서 합을 맞추고 자기 자신과 팀에 대한 믿음을 얻은 AI페퍼스는 급격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AI페퍼스는 개막전부터 KGC인삼공사에게서 첫 세트를 가져오며 우려를 불식시켰다.

개막전부터 KGC인삼공사를 상대로 1세트를 뺏었고, 흥국생명전에서는 매 세트 2점차 접전을 펼치며 끈질기게 따라붙었다. ‘6전 전승’ 현대건설과는 폴세트 접전을 펼쳤고, 나아가 1라운드에서 현대건설을 상대하며 승점을 쟁긴 유일한 팀이 됐다.

선수들은 자신의 기량이 리그에서도 충분히 통한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이 믿음은 급기야 IBK기업은행을 3-1로 꺾고 첫 승을 올리는 밑거름이 됐다.

특히 ‘외국인 드래프트 1순위’ 엘리자벳이 1라운드부터 펄펄 날면서 팀을 이끌었다. 엘리자벳은 6경기 동안 총 171득점을 올리며 흥국생명 캣볼에 이어 득점 2위에 이름을 올렸다. 공격 성공률도 43.48%로 전체 2위, 블로킹도 세트당 0.83회로 전체 3위에 오르는 등 공-수 양면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김형실 AI페퍼스 감독의 리더십도 돋보였다.

김 감독은 경기 중 한 번도 호통을치지 않았다. 패색이 짙은 순간에도 “자신있게, 너희만의 플레이를 하라. 평소처럼 하면 된다. 한 점 한 점을 소중히 하라”는 말로 선수들을 다독였다.

AI페퍼스는 선수들 간 실수를 하더라도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대신 손을 맞대며 “다시 하자”고 외친다. 그 결과 선수



“이겼다” 9일 경기도 화성종합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1-2022 V리그 페퍼저축은행 대 IBK기업은행 경기에서 페퍼저축은행 선수들이 기뻐하고 있다. 페퍼저축은행은 이날 경기에서 IBK기업은행을 세트스코어 3-1로 제압하며 역사적인 첫 승리를 따냈다. <KOVO 제공>

들은 감탄과 맞불더라도 주눅들지 않고 마음껏 담뽀 수 있었다. 김 감독이 ‘서로 눈치 보지 않는’, ‘자신감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애쓴 결과다.

다만 짙은 범실과 약한 수비력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AI페퍼스는 6경기 동안 7개 구단 중 가장 많은 134회 범실을 기록했다. 특히 서브 범실을 줄이는 게 시급하다. 흥국생명전에서는 총 31회 범실 중 20회가 서브 범실이었으며, 기업은행전에서도 한 세트에 서브 실수로 7점을 헌납하는 등 허무하게 점수를

내주는 상황이 잦았다.

AI페퍼스는 세트당 평균 16.83회 디그를 성공시키며 7개 구단 중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다. 디그 성공률도 75.29%로 유일하게 70%대다. 수비력이 취약하다는 얘기다.

블로킹 또한 세트당 2.04회 수준으로 6위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엘리자벳의 라이트 블로킹은 좋으나, 레프트-센터 블로킹이 비교적 약한 것을 지적한다. 중앙 속공과 라이트 공격에 대비할 수비 능력을 갖추는 게 급선무라는 것이다.

JTBC 3 Sports 배구 해설위원인 김민철 조선대 스포츠산업학과 교수는 “1라운드 이후 각 팀의 강점과 약점이 드러났다. 이제 상대는 페퍼의 블로킹 약점을 집요하게 노릴 것”이라며 “이에 맞서 강력한 서브로 리시브를 흔들고 엘리자벳의 공격력, 탄탄한 수비까지 조화를 이루면 2라운드에서 ‘중위권 팀’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1승 너무 빨라서 오히려 걱정”

김형실 AI페퍼스 감독
“선수들 기량 더 끌어올리겠다”

“2-3라운드에서나 1승을 하자는 생각이었는데, 너무 빠르게 이겨버렸습니다. 속도가 너무 빨라 오히려 걱정이 앞서네요.”

AI페퍼스가 IBK기업은행전에서 창단 첫 승을 올린 9일, 김형실(70·사진) AI페퍼스 감독은 “애초 기업은행전에서 승리를 목표로 하지 않았다”면서 담담한 표정을 지었다. 오히려 “이기기보다는 할 것을 다 하고, 최선을 다하자고 선수들에게 당부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첫 승의 기쁨보다 냉정하게 승부를 복기했다. “선수들이 경험을 더 쌓아서 시야도 넓히고, 여유도 만들 필요가 있어요. 3세트에서 22-25로 역습당한 것도 욕심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2세트를 내리 이기니까 감정이 격해지고, 동작이 둔해지는 거죠.”

김 감독은 “1승으로 자만하지 않고, 이 기회에 선수들이 자기 장점과 약점을 또렷이 파악하도록 이끌었다”며 “시합은 연습처럼, 연습은 시합처럼. 쌓아 온 기량을 시합에서 최대한으로 끌어내라고 지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감독은 1라운드 내내 선수들의 정신력을 키우는 데 집중했다. 이한비가 현대건설전에서 결정적인 순간 범실을 내며 불안해하자, “다시 하자. 너를 믿는다. 끝까지 가자”고 위로했다. 문슬기가 여러 차례 디그 기회를 놓치며 흔들리자, “후배들 눈치 보지 마라. 배정있게 하자”고 용기를 북돋았다.

“여자배구는 특히 정신력이 중요합니다. 실수가 트라우마가 되고, 그게 습관이 되면 자기 기량에 못 미치는 플레이만 반복하게 돼요.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게 가장 우선이고, 나아가 의식적으로 불을 다루는 습관과 승부 근성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김 감독은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보완할 점이 많다고 언급했다. 먼저 엘리자벳에 의존하지 않는 다



양한 공격 옵션을 갖추고, 공격 커비팅과 디그를 강화할 계획이다. 레프트-센터의 얇은 블로킹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그는 “1승을 해버렸으니, 우리에겐 더 이상 ‘동정’의 여지가 없다. 꼭 이겨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릴 수도 있고, 쫓기는 입장에서 부담감도 생길 것”이라며 “다른 6개 구단도 우리 전략에 감을 잡았을 거고, 견제도 강화할 것”이라고 짚었다. 2라운드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김 감독은 “AI페퍼스가 분위기만큼은 리그 최강이다. 시종일관 밝은 표정을 짓고, 위기에 돌볼 땐 땀 흘리는 힘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며 “2라운드에서도 AI페퍼스는 자신있게, 의식적으로, 후회 없는 경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최연소 30세이브 내 기록 깨지지 않기를...”

KIA 정해영 “내년엔 더 발전”

“내 기록이 깨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KBO리그 최연소 30세이브 주인공이 웃음을 터트렸다.

KIA 타이거즈의 정해영은 올 시즌 많은 것을 이뤘다. ‘2년 차 징크스’를 잊은 활약으로 부상 불펜에서 마무리 자리를 차지했다.

시즌 초반 불넷에 고전도 했지만 공격적인 피칭으로 위력을 더한 그는 10월에는 리그 최고의 마무리로 주목을 받았다.

10월 15경기 나와 15이닝을 소화하는 동안 단 한 점도 내주지 않았고, 11개의 탈삼진과 12개의 세이브를 더했다. 이는 월간 최다세이브 타이 기록(2000년 6월 진필중, 2001년 5월 위재영)이다.

10월 20일에는 1위 팀 KT를 상대로 30세이브 고지에 오르며 타이거즈는 물론 KBO리그 기록에 이름도 남겼다.

이날 정해영은 선동열, 임창용, 윤석민에 이어 타이거즈의 4번째 ‘30세이브 투수’에 등극했다. 또 LG 고우석(21세 1개월 7일·2019시즌)이 가지고 있던 최연소 30세이브 기록도 갈아치웠다. ‘20세 1개월 27일’이 정해영이 만든 새로운 기록이다.

정해영은 “말도 안 되는 시즌이었던 것 같다”며 “최연소 30세이브가 가장 놀랍다. 할 것이라는 생각도 못 했고 (정)현식이 형이랑 한 개씩만 하자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솔직히 안 믿긴다. 세이브 기회가 오라고 해도 안 올 때도 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 못했다. 이 기록이 안 깨졌으면 좋겠다”고 웃었다.

실패가 실패가 아니었던 시즌이었다. 초반 실패와 실수를 바탕으로 정해영은 팀의 확실한 마무리로 성장했다.

정해영은 “초반에는 아예 안 맞으려고 해서 볼넷도 많고, 주자 쌓아놓고 한 번씩 맞기도 했다. 하지만 타자들이 다 친다고 해서 안타도 아니고, 10개 중 3안타를 쳐야 잘 치는 것이다. 내 공을 전



정해영

력으로 던지면 이길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한 게 좋은 결과로 나왔다”고 말했다.

또 “후반기 와서 속도도 올랐다. 초반 구위가 좋았는데 (흥련을) 맞으면서 자신감이 떨어졌지만 이후에 조금씩 위기를 막고, 형들이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면서 좋아졌다”고 돌아봤다.

올 시즌 확실한 마무리 역할을 했지만 정해영은 고졸 2년 차 어린 투수다. 여전히 마운드에서 긴장도 되지만 경험을 통해 여유를 얻었다.

정해영은 “마지막에 던지고 있지만 똑같은 느낌이다. ‘이닝을 끝냈다’ 이런 느낌이다. 지난해에 추격조도 해보고, 타이탄한 상황도 나가봤는데 한 이닝 끝났을 때 느낌과 비슷한 것 같다”며 “작년보다는 확실히 조금은 마음이 없다. ‘안타 맞으면 어떻게 하지’라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올해는 ‘맞더라도 빨리 맞고 다음 타자에 집중하자’고 빨리빨리 승부자는 생각이었다. 주자가 뛰어도 다음 타자 잡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던지니까 안정감도 생겼다”고 이야기했다.

정해영은 부족했던 부분도 돌아보면서 더 세밀

한 2022시즌을 그리고 있다.

정해영은 “초반에 불넷이 많았다. 후반기 들어 많이 줄이기는 했지만 내년에는 초반부터 끝날 때까지 불넷을 줄이고 싶다. 스피드 욕심도 있지만 올리고 싶다고 올리는 것도 아니고 스피드가 꾸준한 게 더 중요한 것 같다”며 “안 다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운동 열심히 하고 안 다쳐야 스피드도 오르고 꾸준하게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하나 아직 경험하지 못한 ‘가을잔치’도 정해영의 세 번째 시즌 목표에 들어갔다.

그는 “포스트 시즌을 하고 싶은 마음은 올해도 마찬가지였다. 내년엔 다 같이 아프지 않고, 투수 형들 하고 같이 하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다”며 “겨울부터 몸 잘 만들어야 할 것 같다. 팬분들 항상 응원해주셔서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것 같다. 그 부분 항상 감사드리고, 내년에는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올해 불륜세이브가 4개인데 내년에는 2개로 줄이고 열심히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